

인류 공존의 개척자, 인류학과 교육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김 광 역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



1. 잘못 끼워진 첫 단추가 남긴 고질적 문제

한국에서 인류학의 교육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의 인류학 현황이 가지는 문제점들을 살펴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인류학에 대한 개념과 분류 및 그 구성이 서구와는 다르기 때문이며 또한 국내의 학자나 교육 단위에 따라 불규칙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먼저 교육부에서 제시한 학문분류표에는 최근까지도 인류학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인류학 분야에서 교육부 주관의 학술 연구 과제를 신청할 때에는 학문분과 분류 항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곤경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최근에야 고고학이나 민속학의 하위 분과 학문으로 표시되었으나, 그 결과 인류학 연구과제는 고고학자나 민속학자에 의하여 평가되는 일이 많으며, 졸업생들은 사회과학 분야의 전공에 의한 임용 시험이나 장학금 신청에서 아예 신청조차 거부당하는 불이익에 처하는 일이 많다.

인류학은 인간을 문화와 사회적 존재로 보며, 인간의 사회-문화적 측면과 생물학적 측면을 함께 연구하는 종합적인 성격의 학문분과이다. 한국에서 인류학이 알려진 것

* 학과별 교육과제 칼럼에 실린 내용에 대해 이견이나 반론이 있는 분은 200자 원고지 40장 분량으로 『대학교육』지 편집실에 투고해 주시면 편집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해 드립니다.

은 의과대학의 해부학 교실에서 체질인류학을 기초의학 분야의 하나로 가르친 데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 경우 체질인류학은 생물학적 혹은 자연과학적 연구대상으로서의 인간의 신체에 관한 학문분과이며, 인류학에서 말하는 생태계에 적응을 하기 위한 문화적 장치나 적응방식의 문화체계의 맥락에서 인간의 체질적·생리적 다양성과 변화의 문제를 다루는 분과학문이 아니다. 즉, 인간의 체격과 체질 그리고 신체적 특징의 다양성을 문화의 다양성과 연관시키지 않음으로써 원래의 인류학의 하위 분야로서의 체질인류학이 잘못 소개되었으며, 나아가 인류학 전반에 대한 인식을 잘못되게 만들었다.

인류학의 주된 영역은 사회제도와 구조 그리고 문화체계에 관한 것이다. 사람의 행위와 삶의 양식은 그들이 공동체의 성원으로 공유했던 규범, 가치, 윤리, 의무, 의미, 세계관과 인간관 등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는 풍습, 관습, 가족과 혼인과 친족, 종교, 의례, 정치와 경제 행위, 미적 기준 등 사회적 제도와 문화체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는 입장을 지니며, 인간을 이러한 영역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인간의 다양성은 곧 문화의 다양성을 의미하며, 이는 바로 생태환경이나 사회적 조건과 구조의 차이에 의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류학은 인문학적 요소와 자연과학적 요소 그리고 사회과학적 요소를 동시에 지니는 종합과학이며 기초과학이다.

18세기 서구에서 인간과 사회에 관한 백과사전식 과학으로 출발한 인류학은 오늘날의 사회학과 문화학의 모태가 되었다. 그 후 사회학이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추구하는 실용적인 학문분과로 발전함에 따라 문화 위주의 연구를 하는 인

류학의 전통과 구분되었다. 서구의 전통에서는 사람의 행위를 특징짓는 것을 사회적 제도 및 구조라고 봄으로써 사회인류학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데 비하여 미국에서는 문화라는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이후 문화인류학이라고 한다.

인간의 문제를 다루는 학문으로서의 인류학은 사회학과 밀접한 관계를 갖지만, 현대의 서구 사회학과 구분되는 점은 인류학이 현대 산업사회뿐만 아니라 고대와 미개 사회까지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는 점과, 인간이 사회구조와 전통 문화체계에 수동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것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타협과 조절을 하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을 취한다는 점이다. 즉, 인류학은 사회학보다 더욱 공간적으로 폭이 넓으며 사회보다는 주체자로서의 인간의 특성 및 문화를 설명의 바탕으로 삼는다는 특징이 있다.

시간의 차원에서 인류학은 고대 및 선사 시대의 사회와 인간에까지도 연구의 영역을 넓힌다. 고고학은 인류학의 한 하위 분야로서 선사 시대의 사회와 문화체계를 복원하는 학문이며, 이를 위하여 사회인류학자들이 현재의 지구상에서 발견되는 모든 사회, 특히 미개 혹은 단순 사회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수집하는 지식에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받는다. 그런 까닭에 고고학은 인류학과 속해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고고학이 역사학의 한 분과학문으로 되어 있고, 더 나아가 사회-문화인류학이 고고학의 하위 분야로 분류되기까지 한다.

이는 1961년 서울대에서 최초로 인류학 과가 고고인류학과라는 특이한 명칭으로 설립되었던 데서 비롯한다. 이는 일반인은 물론이려니와 교육부나 학술원에서도 인류학

을 고고학의 한 분과로 또는 고고인류학으로 인식하게 만든 것이다. 한편으로는 민속 연구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인류학을 아마추어적 입장에서 다루면서 민속학이 곧 문화인류학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8개 대학에서 인류학 관련 학과가 설립되어 있는 바, 그 명칭과 구성은 다양각색이다. 즉, 서울대, 강원대, 전남대는 인류학과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다. 서울대는 1975년에 고고학과 인류학이 분리되어 전자는 다시 고고미술사학과라는 기형적인 명칭으로 인문대학에 소속되고, 후자는 인류학과로서 사회과학대학에 소속되어 있다. 서울대와 강원대에서는 인류학과 고고학을 분리하고 있는 데 비하여, 전남대 인류학과에서는 고고학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경북대와 전북대, 목포대에는 고고인류학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영남대와 한양대는 문화인류학과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다. 이들 학과는 모두 사회-문화인류학과 고고학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안동대는 민속학과에서 사회-문화인류학을 민속학의 하위 분야로 취급하는 특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학교마다 서로 다른 학문분과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교수와 교과목의 구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과연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가 근본적인 문제로 대두된다. 이 문제는 시대적 조류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기술적인 차원에서의 교육방식과 교과목 설정에 관한 고민이 아니라, 인류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정의 혹은 개념 자체에 대한 것이다.

구미의 많은 대학에서 인류학과는 그 안에 사회-문화인류학, 체질인류학, 고고학, 민속학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과학적 전통

이 강한 영국과 프랑스에서 사회인류학(민족학과 민속학의 전통을 포함하여)과 체질인류학 그리고 고고학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들 학문분과들은 자매 분과로서 교육과 연구활동에서 긴밀한 관계를 지닌다. 런던 대학의 유니버시티 칼리지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는 사회인류학과 체질인류학 및 고고학은 사회인류학과라는 명칭의 한 학과에 속해 있고,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각 스쿨이 강의와 학생 지도를 연합하여 행한다. 미국에서도 하버드나 버클리, 컬럼비아 등의 인류학과에서 보듯이 인류학이란 문화인류학, 고고학, 체질인류학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한국의 실정은 어떠한가? 고고학과 문화인류학은 언제라도 이혼할 준비가 되어 있고 연금 혜택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혼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부부관계와 같다고나 할 것이다. 비록 한 학과 안에 있다 하더라도 고고학과 인류학은 별개의 학문분과로 존재한다. 학생은 한정된 학사과정에서 두 분과에 대한 일정량의 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한 학과에 두 분야의 교수가 있음으로 인하여 전공 교수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어느 한 분야에도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 인류학 전공 학과가 전국에 불과 8개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대학에서 인류학을 '인류학개론' 혹은 '인간과 문화'라는 과목 명칭 아래 가르치고 있고, 교양과목 중에서 수강생이 가장 많은 강의로서 대부분 100~300명 정도의 대형강의로 진행되고 있다. 이 많은 강의들은 주로 인류학 전공자가 아닌 인접학과의 교수(특히 사회학, 고고학, 역사학 관계의 학자)가 하고 있거나 외부의 시간강사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교육의 부실을 가져오며 해당 학문분과의 성격을 왜곡하고 그 존재 기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인류학에 대해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가는 새로운 지식 세대의 욕구와 사회적 수요를 학교와 교육정책 당국이 수용하지 않고 기존의 학문체계가 이를 감당하게 하는 후진성이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현실이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인류학의 올바른 교육방향과 교육과정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인류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고치는 일과 하위 분과들에 대한 정확한 개념 수립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인류학은 지구상의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그들의 사회 구성 원리와 구조 및 유형을 살피고, 그들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학문이다. 오늘날의 인류학은 민족을 연구의 단위로 삼을 뿐만 아니라 같은 민족이라도 자연 및 사회적 조건에 의하여 다양한 삶의 양식을 지닌다는 점, 그리고 다른 민족이나 종족이라도 하나의 문화적 공동체와 사회적 단위를 이룬다는 점을 중시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공동체와 동질적인 단위를 형성하는지 그 과정을 규명한다. 또한 '우리'와 '남'을 구분하고 자연 세계와 사회에 어떤 분류 체계를 적용하며 문화적 요소들을 동원하여 적응하는가를 사회문화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생물·물리적 차원에서도 살핀다. 그러므로 인류학은 민속과 민간전통, 관습과 공적인 제도와 법적인 장치 사이의 관계를 밝힌다. 아마도 여기서 고고학과 인류학은 서로 관련을 갖되, 각각의 독자적인 학문분과로 분류되는 것이 필요하며, 민족학이나 민속학은 문화인류학의 하위 분야로 편제되어

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류학은 종합과학으로서 분류되지만, 좁게는 사회과학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2. 교양교육과 인류학

오늘날 대학에서의 일반적인 학부 교육은 민주 시민으로서, 그리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능력과 자격을 갖추는 교양교육이 위주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한편에서는 일반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수요되는 특수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소위 전문인력 양성 과정으로서의 학부 교육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부 과정은 기능인 양성보다는 삶의 질을 성찰하는 안목을 길러 줄 전인교육의 장이라고 본다.

인류학에서는 이를 위하여 인간과 사회와 문화의 다양함을 깨닫고 이해하며, 모든 문화가 가진 합리성과 원리에 대한 상대주의적인 입장을 지닐 철학적 자세와 지혜를 길러주는 교과목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현대 사회, 특히 산업 및 전자통신 산업 사회에서의 전통문화와 새로운 생활양식의 문제, 소비 생활과 환경의 문제, 지역 문화와 세계 체제의 문제, 민족관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 방법을 기르는 교과목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인류학이 대학교육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이유는 타지역과 타민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때문이다. 최근 국제화나 지구촌화라는 이름 아래 지역연구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고, 관광객의 증가와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는 타민족과 타사회 그리고 타문화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학문 공동체에서 지역연구는 그러나 정치와 경제

분야에 치중되어 있다. 거시적이고 객관적 입장에서 지역의 정치와 경제에 대한 연구는 그것을 담당하고 실천하며 그것에 의하여 일상적으로 영향을 입고 있는 해당 지역 사회의 사람들에 대한 이해 없이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들의 사회구조, 사회적 제도와 관습, 가치관과 규범체계, 생활양식과 사고방식, 의례와 예절 등, 요컨대 문화체계와 사회제도들의 맥락 속에서의 사람을 파악할 때 비로소 그들의 정치적 행위나 경제 활동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인류학자는 장기간 현지 조사를 통하여 언어와 생활을 익히면서 그 속에서 문화를 습득하는 방법을 사용하므로, 일반적으로 지역연구에서 정치와 경제학자에 비하여 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지역연구에서 인류학의 교과목 수강생이 많은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첫째로 학문 분과간의 장벽이 심하여 학생들에게 타과의 관련된 강의를 수강하도록 권장하거나 다른 이론적 분야의 교수들이 연합한 합동강의를 구성하기도 어렵다. 둘째로는 아직도 해외 지역 사회나 타민족 집단의 문화에 대한 연구는 그 역사가 일천하여 잘 훈련된 지역전문가로서의 인류학자가 많지 않다. 셋째로는 해외 지역에 대한 관심을 본격화하기에는 우리나라 학계가 너무나 애국주의적 성향으로 반응한다. 배타적 민족주의는 아마도 식민통치의 경험에서 나온 자기보호 의식에서 그리고 잃어버리고 왜곡된 자아 정체성에 대한 재확립의 욕구와 시대적 사명감에서 나온 문화운동일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 것의 절대화나 우리 것에 대한 배타적 우월주의는 우리가 타문화 혹은 이문화에 대한 문외한이 되거나 그것을 수용하는 데

인색하여 많은 손실을 가져오는 시행착오를 겪게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갖지 못하게 한다.

결국 학부과정에서 인류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에 대하여 인류학이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 사회를 제대로 연구하고 문화에 대한 수준 높은 인류학적 훈련을 쌓은 젊은 학자들이 많이 생겨났어도 학과가 없어서 전임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인류학의 교육이 이루어지기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인류학 교육을 위해서는 이러한 인류학자들을 수용하는 인류학과가 설치되는 것이 시급하다.

3. 학문으로서의 인류학과 대학원 교육

전문적인 학문 분야로서의 인류학은 대학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인류학 교과목들은 학부와 대학원 과정의 구분이 별로 없이 구미 선진국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도입하여 왔다. 학부가 최고 교육과정이었던 저간의 사정은, 특히 미국의 대학원에서 행하고 있는 전문 학자적 이론과 주제 및 전공영역을 직수입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학부와 대학원에서는 (더욱이 석사과정과 박사과정까지 분리되어서) 동일한 제목의 강좌가 연습이나 연구 등의 모호한 단어를 덧붙여서 반복되고 있고, 다만 그 내용의 수준에서 차이를 달리한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대학원 교육은 학부에 비하여 수준의 차이만이 중요한가? 아니면 주제와 영역에서 차이가 나야 하는가?

대학원은 학문적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학문적 차원에서의 인류학이 교육되어야 한다. 물론 이는 현실, 특히 한국적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의 인류학을 소홀히 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학부에서 세계의 넓음과 인간 사회의 다양함에 대한 안목과 지혜를 습득하게 하는 교육에 치중한다면, 대학원에서는 순수한 인류학적인 이론과 지식을 심도있게 연구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세계화가 유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류학은 바로 세계체제의 확산이 지역사회를 편입시키는 과정에 대한 이론뿐만 아니라 실증적이고 비교학적인 연구를 해야 한다. 즉, 그것은 문화, 정치, 경제 그리고 마침내 생활양식과 사고방식 및 세계관이 특정의 세계체제 속에 편입됨으로써 어떻게 변질되는지에 대한 연구인 것이다.

또한 인구문제, 환경문제, 민족간의 접촉문제, 발전 프로그램에 대한 응용 문제를 논해야 한다. 이는 국가의 정책에 대한 생산적 비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타민족이 우리와 비슷한 자연적·사회적 상황에서 혹은 다른 환경 속에서 어떤 식으로 적응하면서 살아가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과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이 세상의 모든 성원들이 공존하는 철학을 발견하도록 유도하고 실질적인 지혜를 제공하는 것이다.

4. 인류학 교육의 발전 방향

교과목의 설정은 기술적인 문제이므로 여기서 더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인류학이 기존의 주제와 이론의 틀에

서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점과 자유로운 교육과정 설치를 위한 틀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인류학이 인간을 위한 학문이라면 인간의 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과 방법으로 접근하고, 기존의 체제에 의해 등급화되고 편재되었던 것에서 자유롭게 그 중요도나 논의의 주제가 이동되어야 한다.

현대 인류학은 서구 중심의 지적 풍토와 학문체제 혹은 지식체제의 허구성과 잘못을 깨우치게 함으로써 새로운 과학의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중요한 동기를 제공해 왔다. 현대 여성학의 발달에서 보듯이 인류학은 성과 권력 그리고 성에 대한 신화 형성의 비밀을 규명하는 장르를 제공함으로써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인류학자들은 더욱 과감하게 현실로 들어가서 종족간 또는 집단간의 갈등과 증오를 고발하고, 그것이 이문화간의 오해 및 의도적인 허구의 조작에 의한 것임을 규명하는 작업을 개척하고 있다. 이러한 학문적 내용이 그때 그때의 교육과정에 수용될 수 있도록 교과목 설정 기제가 보다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사고방식이 교육정책을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인간과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교육의 필요성은 그리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게다가 문화 민족주의가 팽배하고, 그것을 과거의 것으로 채우려는 고고학적 취향과 민족학적 지향이 문화정책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민족 문화를 지구상의 모든 타문화와 동등한 선상에 놓고 객체화 시켜서 보려는 인류학은 감정적 반발을 받게 되고 이는 비공식적으로 교육정책과 문화정책에 반영된다.

선진국가 지향의 추세 속에서 세계의 모든 사회와 민족 집단, 특히 소규모·단순·미

개 사회에까지 관심의 영역을 확대하고 현대 사회와 현대인의 설명에 미개인의 생활과 사고방식, 문화를 동원하는 인류학적 사고방식과 지식체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준제국주의(pseudo-imperialism)나 신식민주의적 태도에 의하여 거부되기가 일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타사회와 타문화 혹은 이질적인 문화와 사회집단 간의 관계에 대한 영역들에서 인류학과 출신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그러한 분야에서 인류학 교육의 효과가 증명되고 있다. 서울대 인류학과 졸업생들은 외교관이나 행정 관리직에 진출하며, 방송 및 언론 분야나 대기업체의 외국과의 거래와 접촉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인류학적 지식과 훈련의 실용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낮고, 영역이 제한되어 있는 편으로서 지방 대학의 인류학과 출신들의 진출 분야는 제한되어 있다. 심지어 고등학교의 '사회와 문화' 과목조차도 인류학을 배우지 않은 교사가 가르치고 있는 실정임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문화관계의 교육을 담당할 교사자격증 부여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어쨌든 인류학은 우리 사회에서 정당한 인정과 수요를 받아야 할 문제에 직면해 있다. 서울대에 인류학과의 처음으로 설립된 지 35년이 지난 오늘에도 전국에 8개 대학에만 인류학과의 있다는 영세성은 우리 학

문 세계의 후진성과 폐쇄성 그리고 교육에서의 단세포적인 정책 성향 등을 그대로 반영한다. 그렇다고 하여 인류학이 정치와 경제적 현실 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려고 해서도 안 될 것이다. 다만 한국인이 더불어 사는 새로운 세계체제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세계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는 데 필요한 학문분과라는 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심화해야 할 것이다.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각 대학의 당국과 대학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당국이 인류학과를 증설하는 데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인류학 전공자가 대학에서의 인류학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학과가 증설되고 이들이 전임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 인류학 교육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것이다. ■

김광익/서울대 문리과대학을 졸업하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사회인류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중화민국 중앙연구원 초빙연구원, 하버드대 및 북경대 초빙교수 등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면서 한국문화인류학회 부회장과 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역·저서로 『인류학 개론』(공저), 『중국 농촌 이야기: 끝없는 혁명』, 『오리진』(역서), 『동남부 중국의 종족 조직』(역서) 등이 있고, "문화공동체와 지방정치", "무속과 저항의례", "종산총의 종교생활"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